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2(土)	23(日)
흐리고 비 8 / 12℃	흐리고 맑음 8 / 18℃

News

- 北 대표단 5·18 참배 제의 ②
- MP3에 '기생귀 먹는다' ④
- 안정환이나 조재진이나 ⑧

Jeollado

- 풍수-영암의吉地

Entertainment

- '궁'으로 스타덤 유지훈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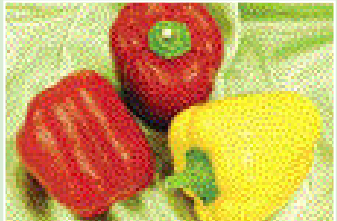
- 씨네카페-'도마뱀' ⑨

Books

- 김훈 소설집 '강산무진' ⑩
- 나를 지배하는 '마음' ⑪

Wellbeing

- 식품 탐구-파프리카 ⑬



- 골프 실전 클리닉 ⑱

목포 난영공원 '추억의 명소'로

목포 출신 국민가수 고(故) 이난영 여사를 추모하기 위한 목포 '난영공원'이 일찍이 우리 민족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련한 추억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삼학도에 70여 평 규모로 마련된 난영공원이 개장한 이후 '목포의 눈물'과 '목포는 항구'

공원 입구 버튼 누르면 '목포의 눈물'이 흐르고

다'라는 노래로 대표되는 그 시절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껴보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상수리나무 숲을 배경 삼아 드넓은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난영공원'에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로 시작하는 노랫가사를 흥얼거리는 '어르신'들과, 아이의 고사리 손을 잡고 소풍나온 젊은 부부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경기도 파주시 공동묘지에 관리 인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고 이난



고 이난영 여사의 숨결이 스며있는 삼학도 난영공원이 목포시민들의 새로운 쉼터이자 추억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 여사의 묘소가 목포로 옮겨지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12월 목포문화원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이후 이 여사의 묘소는 인터넷 카페 개설과 음악감상회, 묘소 답사, 유족전시회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삼학도 난영공원 내 20년 생 백일홍 밑에 자리를 잡았다.

난영공원 입구 왼쪽 돌비석에는 문일석 작사, 손목민 작곡으로 1935년 8월에 취입한 '목포의 눈물'노래 가사가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 조병암 시인이 노랫말을 쓰고 이 여사의 오빠인 이병룡 씨가 작

곡, 1942년에 취입한 '목포는 항구다'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돌비석이 세워져 있어 그 시절의 애환을 느끼게 한다.

또 입구에서 버튼만 누르면 설움에 가득 찬 노랫소리가 자동으로 흘러나와 언제든 이 여사를 느낄 수 있다.

전주시 노송동에서 난영공원을 찾은 서장근(57)씨는 "고인은 가수이기 전에, 노랫말에 시대의 설움과 비통함을 담아낸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학생과 신세대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이난영 여사는 1916년 목포에서 출생, 15세 때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태양극단에 입단, 단역가수로서 노래하다가 1934년 OK레코드사에서 손목민 작곡의 '불사조'를 불러 가요계에 데뷔했다. 1935년 역시 손목민 작곡인 '목포의 눈물'이 크게 히트해 유명해

남녀노소 산책 장소 가족 소풍객에 인기

졌다. 6·25 때 납북된 남편 김해송씨와 사이에 7남매를 뒀으며, 그 자녀들은 후에 '김시스터즈', '김보아즈'라는 보컬팀을 만들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활약했다.

이 여사의 둘째 아들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영일(63)씨는 "타향에 초라하게 방치된 어머니의 묘지를 목포시민들이 고향으로 모셔 준 것에 감사한다"며 "자주 목포를 찾아 시민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한·일 독도 외교 교섭

'해저지형 한국어명 등재 철회' 초점

한일 양국이 동해 측량파문과 관련, 본격적인 외교 교섭에 착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5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1차 협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는 그 동안 양측이 주장해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고 한다.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제시했던 수로측량계획 중단 조건은 독도 주변 해저지형의 한국어명칭 부여유지 철회와 우리 측 EEZ내 수로조사의 상호보통제도

도입, 해저지형 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EEZ확정 협상 재개 등이다.

상호보통제도는 우리 정부가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협의의 초점은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해저지형의 한국어명 등재신청 철회로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일본측은 등재계획 철회를 줄곧 요구했고, 우리 측은 국내 여론을 의식, 암묵적인 연기의 뜻을 전달해 절충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양국 외교차관은 상황에 따라 22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재환 민주 사무총장 체포

최락도 전 의원에 4억 배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최 전 의원의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출국금지했다. <관련기사 2면>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 저녁 9시50분께 서울 흥은동 G호텔 주차장에서 최 전 의원으로부터 '김제시장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 전 의원 측에서 받은 사과상자를 실은 자신의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호터를 떠나다 현장에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원회원 장학58년 휘문고 2층
 중앙의 새로운 명문대학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서울캠퍼스 02-270-0114 ▶ 1102670-0200-4

세계를 뚫어주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 서울캠퍼스 0288-9251 ▶ 11091360-3000



하늘에서 본 새만금 방조제 마지막 물막이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공사 시작 15년만인 21일 오후 1시께 완공됐다. 이날 가력도의 개방구간(1.6km)중 마지막 남은 60m의 물막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마침내 방조제가 하나로 이어졌다.

<헬기조종=전북경찰청 조동환 경감> /N-POOL전북일보=안봉주 기자

난, 변하고 싶어

변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u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지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변질할 염려의 과잉없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이 저하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치료효과 및 트루스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을 위한 변신의 미술품 가져다 줍니다.

내가 변덕장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쪽쪽뿔뿔이 있으니까
 툭툭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